

한일 新경어 청자대우법 등급 설정에 관한 연구*

-블로그에 나타난 ‘っす체’와 ‘함다체’의 사용양상·의도를 중심으로-

김지희**

〈 Abstract 〉

A Study of Rating Japanese and Korean New Honorifics in the Hearer-Honorific System: Focusing on the usage of “-ssu” and “-hamda” appearing on blogs

This research aimed at determining the respective use aspect and use intention targeting so-called “-ssu” and “-hamda”, which do not exist in the normative Korean and Japanese respect honorific systems but are widely used by general people. It insi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se termination forms in the independent rating in speech level to hearer system.

Examples of the research were analyzed by collecting blog bulletin board messages that can be called quasi-conversational language.

Firstly,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ssu” and “-hamda” in the bulletin board messages, it was low, 7.3% and 10.6% respectively. However, based on this point, it was determined that the ordinary people strategically utilize these forms intentionally. Also, the function of “-ssu” and “-hamda” could be arranged that they have the meaning of fun and emphasis through non-daily form.

Lastl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research claimed that “-ssu” and “-hamda” should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division in special Hwagye. To include them in polite expression systems can be said to be too early, however more research on considering the actual use aspect of speech levels to hearer from various groups could develop research on polite expression systems. The researcher hopes this research could be an opportunity to newly establish special Hwagye in the Japanese polite expression system, though insufficient. Also, the researcher expects that this research could be a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to reorganize special Hwagye in the Korean language.

Field : Sociolinguistics

Keywords : “-ssu”, “-hamda”, New polite expression, Strategic polite expression, Speech level to hearer, Special Hwagye

1. 서론

한일 규범적인 청자대우법 체계 안에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종결형식이 있다.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やはり、交通機関に乗っている時が一番筆が進みますね。

* 이 논문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812)

** (前)가톨릭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あ、自転車はムリっす (笑) 両手が塞がっているから (笑)

<https://blogs.yahoo.co.jp/kamikamiwayo/12395999.html>

(2) 元祖? しょうゆどん美味しかったっす!

<https://blogs.yahoo.co.jp/masa1965tk/15642736.html>

(3) バンズはゴマが沢山ふりかけられているっす。

<https://blogs.yahoo.co.jp/m0513road/46032001.html>

(4) 속리산 범주사임다~

이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대로 맞춘듯 함다

(생략)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장소가 넓으니 그리 신경쓰이지 않습다

<https://blog.naver.com/manduwasun/221128234486>

일본어 ‘っす체’ 는 정중체 ‘です’ 의 축약형으로 본래 ‘です’ 는 명사문·형용사문에 접속하지만 (3)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사문의 정중체인 ‘ます’ 를 대신하여 쓰이기도 한다.

한편 한국어의 (4)의 예문에 등장하는 ‘함다’ 와 같은 형식은 한국어 청자대우법의 아주높임(하십시오체) 형식인 ‘버니다’ 의 축약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경어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식으로 명사문에는 ‘임다’ 가, 형용사·동사문에는 ‘함다습다’ 가 쓰이고 있다).

‘っす체’ 와 ‘함다체’ 두 형식 모두 청자대우 중에서도 높임 형식의 축약형이라면 이들이 청자를 높여 대우하기 위한 경어 형식인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っす체’ 와 ‘함다체’ 가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만화와 그 대역본에서 서로 대응하고 있어, 이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이들 형식의 사용에 대한 인식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1> 일본어판



<그림2> 한국어판

1) 지금부터 논의의 편의상 한국어의 ‘임다’ 와 ‘함다습다’ 를 ‘함다체’ 라 통칭하기로 한다. 이 명칭은 한국어의 청자대우법 체계가 ‘하다’ 동사 활용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따랐다. 일본어의 ‘っす’ 는 ‘っす체’ 라 부르기로 한다.

지금까지 ‘っす체’ 나 ‘합다체’ 와 같은 새로운 종결형식에 대한 논의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 대부분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어, 맞춤법의 파괴 등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이들 형식이 등장한 초기에는 ‘っす체’ 는 체육계남학생들이 사용하는 ‘은어’ 로 인식되었으며, ‘합다체’ 는 군대에서 ‘다나까체’ 를 사용하던 남성들이 제대 후 사회조직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특수 집단의 언어로 분리되어 청자대우법을 논의할 때 제외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²⁾. 그러나 ‘っす체’ 와 ‘합다체’ 의 사용을 특정 몇몇 계층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유행어로 치부하기에는 다양한 세대에 걸쳐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예문(1)~(4)와 <그림1><그림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³⁾.

본 연구는 ‘っす체’ 와 ‘합다체’ 가 그 사용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표1><표2>의 한일 양 언어의 규범적인 청자대우법의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표1> 일본어의 대자경어(芦田2005:201,일부수정)

敬体	-ございます	丁重語
	-です、-ます	丁寧語
常体	-だ	

<표2>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이관규2005:285)

	격식체	비격식체
높임	아주높임(하십시오체)	두루높임(해요체)
	예사높임(하오체)	
낮춤	예사낮춤(하계체)	두루낮춤(해체)
	아주낮춤(해라체)	

일본어의 대자경어(対者敬語) 중 정중체(敬体)는 정중어(丁重語)、정녕어(丁寧語)의 2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보통체(常体)인 ‘だ体/である体’ 를 포함하더라도 지극히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어는 일본어에 비해 복잡하기는 하나, 비격식체의 경우 2등분의 체계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종선(2009:19)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격식체의 ‘하오체’ 와 ‘하계체’ 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격식과 비격식을 합하더라도 청자를 높여 대우하는 등급은 ‘하십시오체’ 와 ‘해요체’ 에 불과하게 된다. 양 언어의 경어체계가 단순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っす체’ 와 ‘합다체’ 의 사용은 새로운 경어체계에 대한 대중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양 언어의 경어체계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대표적으로 일본어의 경우 객체 존대 동사인 ‘まゐる’ 가 음운변화를 거쳐 청자 존대의 ‘ます’ 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森本1999:100). 한국어의 경우도 ‘해요체’ 가 등장하여 오늘날과 같이 널리 사용하게 되는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권용문2009:117). 앞으로 ‘ます’ 가 또 다른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해요체’ 가 새롭게 등장하였듯이 청자대우의 새로운 형식이 등장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는 점에서 ‘っす체’ 와 ‘합다체’ 의 사용 확산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한국어의 ‘합다체’ 의 사용 확산이 2016년 방영된 『태양의 후예』 라는 드라마의 영향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뒤에 소개하듯이 ‘합다체’ 는 그 이전부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블로그게시글의 용례를 수집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3) 출처는 용례출전에서 참조.

이에 본 연구는 일본어의 ‘っす체’와 한국어의 ‘합다체’를 비교·서술하면서 이들의 사용양상과 사용 의도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 종결형식들을 청자대우법 체계 내에서 독립된 등급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한 청자대우의 종결형식을 언어학적으로 접근하여 기술하고 한일 양언어의 현시대의 언어 사용 양상의 실태와 인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한일 양언어의 경어체계가 단순화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문제점 제시

2.1 일본어의 선행연구

일본어의 경우 ‘っす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井上(2017), 倉持(2009), 黒木(2016) 등을 들 수 있다.

井上(2017:69)는 명사문·형용사문 뿐만 아니라 동사문, 인사말 등의 모든 문이 ‘っす’로 해결되는 단순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체계성이 명확하여 중간경어 ‘っす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っす’는 ‘学長がいらっしやるっす’, ‘学長にお礼を申し上げるっす’와 같이 존경어나 겸양어에 연동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문체를 크게 敬体(です/ます体)와 常体(だ体/である体)로 나누었을 때는 常体に 속하며 ‘です’ ‘ます’보다 하위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용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존경어 또는 겸양어와 결합하는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5) あ!お客様が…!!お客様がいらっしやっったっす——っ!!
 そんな雨にもかかわらず、いらして下さったお客様!!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http://uramani.duemani.main.jp/?eid=3459>

- (6) 無事, 目的の動作を得ることが出来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っ!!
 素早い回答, 重ねてお礼申し上げます!

http://www.vbalab.net/vbaqa/data/excel/log/tree_349.htm

본 연구도 ‘っす’가 ‘です’ ‘ます’보다 아래에 위치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井上(2017)가 제시한 근거로는 위의 예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들어 ‘っす’의 등급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대중들이 모든 ‘です’ ‘ます’를 ‘っす’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간단히 ‘중간경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倉持(2009:27-28)에서는 1개의 블로그에 사용된 ‘っす’ (총5개)를 예로 들어 ‘っす’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정리하고 있다⁴⁾.

- (7) 블로그에 사용된 ‘っす’의 효과
 1) 운율을 맞추는 재미

4) 본 연구에 등장하는 모든 일본어 논문은 필자가 번역하였다.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는 모두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문말의 반 이상은 동사로 이루어진다. 동사에도 ‘っす’ 를 사용하면 전체 문말을 ‘っす’ 로 통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리듬감과 재미가 더해진다.

2) 상대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밀감을 나타낸다

보통체문은 종조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뚝뚝해 보이고, 사용하면 버릇없어 보이기 쉽다. 그에 반해, ‘っす’ 문은 원래 경의표현(敬意表現)으로 무례함을 미연에 방지해준다. 또한, 형태를 흐트러뜨린 형식으로 친밀감을 전달할 수 있다.

3) 신선함을 준다

회화체도 ‘편지’ 형식도 아닌 새로운 문체로 신선한 인상을 줄 수 있다.

4) 유대감을 높인다

공통된 문체를 애용하는 ‘블로거’ 로서의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다.

黒木(2016:50)에서는 인터넷 상에 1명이 쓴 에세이에 사용된 52개의 ‘っす’ 를 검토하여 ‘っす’ 가 심정문(心情文)과 주장문에 나타나기 쉬우며, 전후의 사실문, 주장문에 쓰여진 내용에 대한 화자의 기분이나 보조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倉持(2009)와 黒木(2016)에서는 각각 1명이 사용한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주장을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倉持(2009:34)의 경우 ‘っす’ 의 사용이 일반대중들 사이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형식이라고 말하면서도 ‘っす’ 의 청자대우의 등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상에서 ‘っす’ 의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의문이 든 것은 현대 일본어의 경어체계가 상대방을 높이면 친밀감을 나타내는 등급이 변별적인 요소로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っす체’ 의 사용양상과 사용의도를 살펴보면서 일본어의 경어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2.2 한국어의 선행연구

한편, 한국어의 ‘합다체’ 에 대해서는 언어학적 관점의 대우법 연구에서보다는 컴퓨터 통신 언어(사이버 언어)의 신조어 연구에서의 언급이 많다(시정곤(2006), 권연진(2000), 이정복(2002)).

예를 들어 권연진(2000:13-14)은 컴퓨터 통신 언어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그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통신언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혹은 축약된 단어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8) 자기야 → 자가

얼른 → 언능

먹고 싶어 → 머꾸 시퍼

겸비했습니다 → 겸비했습다

무섭습니다 → 무섭습다

(권연진2000:13, 일부생략)

권연진(2000:14)은 위의 예들은 이야기를 실감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습니다’ 를 줄여 ‘습다’ 로 표현하는 현상은 반복되는 어휘의 지루함을 없애고 딱딱한 표현을 좀 더 부드럽게 하려는 성향으로 긴 글을 쓰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습다’ 와 같은 문법형식을 ‘자가’, ‘언능’ 등과 같은 어휘형식과 함께 같은 레벨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정복(2002)은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통신 언어의 문장종결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9) 종결어미가 변형된 문장들

(9-1) 어제 스타 1.09를 다운받았습니다.

(9-2) 다. 잘 되었으면 메일좀 보내 주세요. (이정복2002:112, 일부생략)

이정복(2002:112) 또한 통신 언어의 문장은 종결어미에서 다양한 형태 변이를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9-1)의 ‘습니다’는 ‘하십시오체’의 ‘습니다’가 바뀐 것이고, (9-2) ‘어용’은 ‘어요’에 자음 ‘ㅇ’이 더해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소리 바꾸기와 소리 더하기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거나 애교스럽게 표현하고 때로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몇몇 선행연구에서 단편적인 언급이 있기는 하였지만, ‘합다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쓰임의 실태와 의도를 고찰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참고로 이정복(2011:15-28)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종결형식 중의 하나인 ‘한다요체(해라체 종결어미 + 요)’를 대상으로 그 발생동기와 사용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⁵⁾.

(10) ‘한다요체’의 주요 기능

(10-1) 경어법 사용 기능 : ‘한다요체’는 ‘해라체’를 급하게 높임말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생겨난 말로서 높임말과 안높임말의 느낌을 조화시켜 표현하고 상대방을 부담 없이 대우하는 기능을 갖는다.

(10-2) 통신 언어 표현 기능 : ‘한다요체’는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귀엽고, 부드럽고, 친근하게 표현하며 비일상적인 형식을 통하여 재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도 ‘합다체’의 사용기능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그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어, 이정복(2011)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っす체’와 ‘합다체’를 수집·분석하여 이들의 사용양상을 살펴보고 이어서 경어법 체계 안에서의 위치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3. ‘っす체’와 ‘합다체’의 사용양상에 관한 조사

3.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っす체’와 ‘합다체’의 사용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와 야후재팬 블로그(<https://blogs.yahoo.co.jp>)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제

5) ‘한다요체’의 대표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a) 신의퀴즈! 오늘 한다요

(b) 11일동안 여행갔다 왔대요. (이정복(2011:15, 일부생략))

발화가 아니라 접어에서 청자대우를 논의하기에는 불완전할 수 있지만, 블로그 게시글은 에세이 형식으로 구어체의 특징을 담고 있는 글이고 하나의 게시글 안에 주제 및 내용의 완결이 있어 ‘っす체’와 ‘합다체’의 사용의도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⁶⁾. 검색엔진은 한국어의 경우 NAVER(<https://www.naver.com/>)를, 일본어의 경우 Google(<https://www.google.co.jp/>)을 사용하였다.

〈표3〉 검색옵션 설정

	일본어	한국어
사이트	https://blogs.yahoo.co.jp	http://blog.naver.com
검색어	っす/ッス	입다/습다/합다
검색대상기간	2010년 1월 ~ 2017년 12월로 지정	
검색일	2018년 3월 5일(월) ~ 2018년 3월 7일(수)	

한국어와 일본어 각각 총 200개의 용례를 선출하고 그 중에 40개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처음 200개를 선출할 때 ‘っす체’와 ‘합다체’의 사용 맥락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블로그 테마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요리(맛집)와 여행 2가지로 테마를 한정하였다⁷⁾.

3.2 결과 및 고찰

먼저, 한일 양언어의 블로그에서 수집한 게시글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청자대우법의 형식의 상대적 비중을 아래 표와 같이 파악하였다⁸⁾.

〈표4〉는 일본어 블로그, 〈표5〉는 한국어 블로그 별 전체 문장수에 대한 종결형식의 사용 비율을 나타낸다.

- 6) 한국어의 경우 ‘합다체’의 발음의 특성상 문개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구어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 7) 테마는 수집과정에서 블로그 제목 및 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수집한 블로그 사이트주소와 등록일 정보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 8) 게시글의 각 문장을 청자대우 등급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우선 첫 작업으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여 분류하였다.
 - a) 부사나 조사등의 비완결형으로 문장이 끝나는 경우 「기타」로 분류.
 - b) 감탄사, 인사말, 영어 등으로 화계의 구별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기타」로 분류.
 - c) 명사(형)종결형식 ‘해체’는 단어로도 실현가능하다는 서정수(1984:71)의 논의에 따라 ‘해체’로 분류.
 - d) ‘합다체’ 이외의 종결형식의 형태변이, 「기타」로 분류.
(종결형식의 변형은 규범적인 청자대우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기타」에 관한 자세한 분석과 고찰은 추후과제로 남긴다.)
 - e) 부호나 기호등으로만 된 의성어, 의태어 표현 등은 제외.
일본어도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4〉 일본어 블로그의 종결형식⁹⁾

	정중체		보통체		っす체		기타		전체문장수 (100.0)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①	17	56.7	6	20.0	2	6.7	5	16.7	30
②	27	90.0	2	6.7	1	3.3	0	0.0	30
③	22	57.9	10	26.3	1	2.6	5	13.2	38
④	10	25.6	15	38.5	1	2.6	13	33.3	39
⑤	2	2.9	41	58.6	3	4.3	24	34.3	70
⑥	7	36.8	7	36.8	2	10.5	3	15.8	19
⑦	7	30.4	5	21.7	6	26.1	5	21.7	23
⑧	4	26.7	6	40.0	4	26.7	1	6.7	15
⑨	22	34.9	19	30.2	13	20.6	9	14.3	63
⑩	1	5.0	10	50.0	1	5.0	8	40.0	20
⑪	2	28.6	2	28.6	2	28.6	1	14.3	7
⑫	14	19.2	41	56.2	3	4.1	15	20.5	73
⑬	10	27.8	17	47.2	1	2.8	8	22.2	36
⑭	9	64.3	3	21.4	1	7.1	1	7.1	14
⑮	8	47.1	1	5.9	1	5.9	7	41.2	17
⑯	5	41.7	2	16.7	1	8.3	4	33.3	12
⑰	1	3.2	25	80.6	1	3.2	4	12.9	31
⑱	4	19.0	12	57.1	1	4.8	4	19.0	21
⑲	5	25.0	5	25.0	3	15.0	7	35.0	20
⑳	11	47.8	9	39.1	1	4.3	2	8.7	23
㉑	6	33.3	7	38.9	4	22.2	1	5.6	18
㉒	19	63.3	8	26.7	1	3.3	2	6.7	30
㉓	37	77.1	6	12.5	1	2.1	4	8.3	48
㉔	6	16.2	23	62.2	1	2.7	7	18.9	37
㉕	17	35.4	22	45.8	2	4.2	7	14.6	48
㉖	6	18.2	15	45.5	6	18.2	6	18.2	33
㉗	23	42.6	16	29.6	3	5.6	12	22.2	54
㉘	14	53.8	6	23.1	2	7.7	4	15.4	26
㉙	7	18.4	24	63.2	2	5.3	5	13.2	38
㉚	7	50.0	5	35.7	1	7.1	1	7.1	14
㉛	14	51.9	11	40.7	1	3.7	1	3.7	27
㉜	8	22.2	20	55.6	3	8.3	5	13.9	36
㉝	16	40.0	21	52.5	1	2.5	2	5.0	40
㉞	5	7.0	42	59.2	1	1.4	23	32.4	71
㉟	23	46.0	22	44.0	1	2.0	4	8.0	50
㊱	9	30.0	8	26.7	6	20.0	7	23.3	30
㊲	12	27.3	16	36.4	4	9.1	12	27.3	44
㊳	1	16.7	2	33.3	1	16.7	2	33.3	6
㊴	5	21.7	13	56.5	3	13.0	2	8.7	23
㊵	16	44.4	12	33.3	2	5.6	6	16.7	36
합 계	439	33.5	537	41.0	95	7.3	239	18.2	1,310

9) 게시글의 타이틀에 ‘っす체’와 ‘함다체’를 사용한 블로그는 그림자표시를 넣어두었다.

〈표5〉 한국어 블로그의 종결형식

	높임(정중체)						안 높임(보통체)						함다체		기타		전체 문장수 (100.0)
	하십시오체		해요체		소계		해라체		해체		소계		횟수	비율 (%)	횟수	비율 (%)	
	횟수	비율 (%)	횟수	비율 (%)	횟수	비율 (%)	횟수	비율 (%)	횟수	비율 (%)	횟수	비율 (%)					
[1]	19	54.3	8	22.9	27	77.1			1	2.9	1	2.9	1	2.9	6	17.1	35
[2]	4	23.5	4	23.5	8	47.1			2	11.8	2	11.8	2	11.8	5	29.4	17
[3]			1	3.6	1	3.6	1	3.6	11	39.3	12	42.9	12	42.9	3	10.7	28
[4]	12	32.4	2	5.4	14	37.8			5	13.5	5	13.5	9	24.3	9	24.3	37
[5]			4	40.0	4	40.0							2	20.0	4	40.0	10
[6]	4	10.8	13	35.1	17	45.9	1	2.7	11	29.7	12	32.4	2	5.4	6	16.2	37
[7]			12	28.6	12	28.6			14	33.3	14	33.3	2	4.8	14	33.3	42
[8]	5	20.0	1	4.0	6	24.0	1	4.0	7	28.0	8	32.0	5	20.0	6	24.0	25
[9]	4	57.1	1	14.3	5	71.4							1	14.3	1	14.3	7
[10]	1	7.1	7	50.0	8	57.1			4	28.6	4	28.6	1	7.1	1	7.1	14
[11]			5	23.8	5	23.8	1	4.8	4	19.0	5	23.8	7	33.3	4	19.0	21
[12]	8	61.5			8	61.5	2	15.4			2	15.4	1	7.7	2	15.4	13
[13]	4	26.7	6	40.0	10	66.7			2	13.3	2	13.3	1	6.7	2	13.3	15
[14]	2	33.3	2	33.3	4	66.7			1	16.7	1	16.7	1	16.7			6
[15]	7	25.0	11	39.3	18	64.3			1	3.6	1	3.6	2	7.1	7	25.0	28
[16]			2	15.4	2	15.4	4	30.8	4	30.8	8	61.5	1	7.7	2	15.4	13
[17]	1	8.3	9	75.0	10	83.3			1	8.3	1	8.3	1	8.3			12
[18]	9	45.0	6	30.0	15	75.0			2	10.0	2	10.0	1	5.0	2	10.0	20
[19]	3	9.7	16	51.6	19	61.3			7	22.6	7	22.6	1	3.2	4	12.9	31
[20]	9	22.5	18	45.0	27	67.5			8	20.0	8	20.0	1	2.5	4	10.0	40
[21]	11	35.5	9	29.0	20	64.5			5	16.1	5	16.1	1	3.2	5	16.1	31
[22]			5	12.8	5	12.8			15	38.5	15	38.5	4	10.3	15	38.5	39
[23]	16	19.3	51	61.4	67	80.7			2	2.4	2	2.4	2	2.4	12	14.5	83
[24]			9	42.9	9	42.9			5	23.8	5	23.8	1	4.8	6	28.6	21
[25]	1	3.1	23	71.9	24	75.0	1	3.1	1	3.1	2	6.3	1	3.1	5	15.6	32
[26]			1	4.2	1	4.2	8	33.3			8	33.3	13	54.2	2	8.3	24
[27]	7	26.9	8	30.8	15	57.7			6	23.1	6	23.1	1	3.8	4	15.4	26
[28]	3	5.1	32	54.2	35	59.3			1	1.7	1	1.7	8	13.6	15	25.4	59
[29]			1	3.3	1	3.3	1	3.3	19	63.3	20	66.7	2	6.7	7	23.3	30
[30]			2	10.0	2	10.0	2	10.0	8	40.0	10	50.0	4	20.0	4	20.0	20
[31]	3	6.3	4	8.3	7	14.6			5	10.4	5	10.4	13	27.1	23	47.9	48
[32]									18	62.1	18	62.1	1	3.4	10	34.5	29
[33]	5	18.5			5	18.5	1	3.7	18	66.7	19	70.4	1	3.7	2	7.4	27
[34]			6	23.1	6	23.1	1	3.8	10	38.5	11	42.3	6	23.1	3	11.5	26
[35]			2	7.1	2	7.1	2	7.1	13	46.4	15	53.6	3	10.7	8	28.6	28
[36]	1	7.7	9	69.2	10	76.9			1	7.7	1	7.7	1	7.7	1	7.7	13
[37]	16	21.3	15	20.0	31	41.3	2	2.7	12	16.0	14	18.7	2	2.7	28	37.3	75
[38]	4	15.4	10	38.5	14	53.8			6	23.1	6	23.1	2	7.7	4	15.4	26
[39]	8	26.7	1	3.3	9	30.0			9	30.0	9	30.0	1	3.3	11	36.7	30
[40]	6	21.4	8	28.6	14	50.0	1	3.6	1	3.6	2	7.1	1	3.6	11	39.3	28
합 계	173	15.1	324	28.3	497	43.4	29	2.5	240	20.9	269	23.5	122	10.6	258	22.5	1,146

이번 연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ㄹ체’와 ‘함다체’는 예상보다 많이 관찰되었고, 예문수집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대중들에게 익숙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각 게시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ㄹ체’와 ‘함다체’ 비율은 각각 7.3%와 10.6%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

었다¹⁰⁾. 더욱이 각각의 게시글에서 사용된 횟수를 보면 전체문장에서 1~2개의 문말에만 사용한 경우가 ‘っす체’는 67.5%, ‘합다체’는 72.5%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론적으로는 모든 문말을 ‘っす체’와 ‘합다체’로 대체할 수 있지만 다용(多用)하지 않으면서 ‘っす체’와 ‘합다체’의 문장을 눈에 띄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전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倉持(2009)에서 ‘っす체’의 효과에 대해 ‘신선함을 준다’라고 설명하였고, 이정복(2011:38-39)에서 ‘한다요체’ 등을 예로 들어 종결어미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바꾼 표현들은 경제성의 면에서 종결어미를 간단히 줄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표현과 다른 데서 오는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한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서 본 연구에서는 ‘っす체’와 ‘합다체’만의 눈에 띄는 기능으로는 먼저 각 게시글의 타이틀 문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자 한다.

(11) 타이틀에 사용된 예(번호는 블로그No.)

- (a) ②…とろける旨みっす!
- (b) ⑧…インドネシアならではの看板っす!
- (c) ⑨…峰浜で6時間っす
- (d) ⑮…挽ぎたての枝豆は最高ッス
- (e) [5]…이번 휴일은 폭식금지 입다!
- (f) [16]…홍콩야경~ 두번째 방문 입다.
- (g) [23]…문래동 맛집 속성 한우 값진식육 꼭 가야함다.
- (h) [25]…기운이 달릴 땐 고기를 먹어야 함다.

일본어의 경우 22.5%의 블로그에서 타이틀 문장에 ‘っす체’를 사용하였고, 한국어 블로그에서는 50%에 달하는 블로그에서 타이틀 문장에 ‘합다체’를 사용하였다. 이 문장들을 규범적인 형식들로 바꾸면 (11)이 가지는 강조의 느낌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즉, ‘っす체’와 ‘합다체’는 <강조(임팩트)>의 기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블로그의 준구어체 문장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어체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될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니 ‘っす체’와 ‘합다체’는 (12)의 예와 같이 자신이 실수를 한 내용이나 혹은 부끄러운 상황을 표현할 때도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12)

- (a) ⑱…また、美女たちがとってもおとなしかったせいもあるけど、
"「くどくど くどくど くどくど…と、不平・不満を言っておりましたっ!」"
"…おかげで、会の終わり頃の雰囲気は いわゆる お通夜ッス (+_+)"
- (b) ㉓…チャーシューも柔らかく味噌スープに付けることでますます美味しくなります

10) 이밖에도 <표4><표5>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일 양언어의 블로그 모두 정중체와 보통체를 혼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두고 싶다. 블로그 게시글은 일기 형식의 글로 모든 문을 보통체로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메시지이며 그들을 청자(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중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규명은 역시 추후의 과제로 한다.

- 麺は硬めなんですがこのスープだと柔らかいほうがボクは好きかも！！
 もちろん柔らかくも出来ますよ(*^_^*) もちろんスープも完食ッス
- (c) ⑧…空港で一度降りなければなりません。(省略) そして、この写真を撮った直後に軍人のような制服を着た職員に『写真撮るな!』と怒られる。
 毎回やる恒例行事ッス (笑)
- (d) [3]…김치 수제비 6천원?
 요건 가격표를 봤는데 알콜 호로록 후 가물가물 함다.
 늘 숫자에 약한 흥아트임다.
- (e) [7]…밤 9시쯤? 갔는데....
 "잉? 전세냈...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어디갔나봐요???
- (f) [39]…"바쁜신 와중에 리코타도 손수 만드신다갈래 망설이다가
 소금 간 좀 줘만 해주세요.. 했슴다." 진상~

일본어의 예문을 보면 (12a)자신의 탓에 술자리가 상가집같았음을, (12b)라면의 국물까지 다 마셔버렸음을, (12c)공항의 사진을 찍어서는 안되는 장소에서 또 사진을 찍었음을 고백하는 문장이다. 한국어의 예문도 문맥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함다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규범에서 벗어난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해학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っす체’와 ‘함다체’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리하자면, ‘っす체’와 ‘함다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선함을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서 타이틀에서의 사용과 같이 주목을 불러일으키고자 할 때 또는 자신의 실수나 부끄러운 상황을 고백할 때 주목유도와 해학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4. ‘っす체’와 ‘함다체’의 등급설정

그럼 이어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 중 하나인 ‘っす체’와 ‘함다체’를 청자대우법의 체계 안에 포함시킨다면 어느 단계의 등급으로 포함시킬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정복(1999)의 국어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정복(1999:95)는 국어 경어법의 쓰임을 규범적 용법과 전략적 용법으로 구분하고 전략적 용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¹¹⁾.

(13) 전략적 용법의 개념

화자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언어 공동체의 규범과 다르거나 그것으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방향에서 경어법 사용 방식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유표적이고 보다 의식적인 경어법 사용

그리고,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이은희(2009:223-229)에서는 상대높임의 사용측면을 고려하면서 청자대우법의 화계(話階)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자대우의 화계를 일반화계(청장년층의 현

11) 단, 이정복(1999)는 전략적 경어법의 청자대우법 등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계)와, 특별화계(몇몇 계층 혹은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화계)를 나누고, 다음과 같이 등급을 설정하였다.

〈표6〉 일반화계[주체=청자](이은희2009:229)

화계	높임의 정도
하십니다	높임
하세요	
합니다	
해요	
해	안높임
한다	

〈표7〉 특별화계[주체=청자](이은희2009:229)

화계	높임의 정도
하시오	높임
하셔	
하오	
하시네	
하네	

부연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본 연구의 관심은 바로 〈표7〉의 특별화계에 있다. 특히 이은희(2009:230)에서 (14)와 같은 ‘하셔체’에 대해 「농담을 할 때나 재미를 더한 말투로 사용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습관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수의적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말투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특별화계의 하나의 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 신동 욱을 하는데 왜 장윤정 씨가 화를 내고...그러서!!

(2007.2.11. 재방송 KBS TV "스타 골든벨" 자막 중)

(이2009:230)

이은희(2009)의 특별화계의 정의에 입각하면 ‘합다체’ 또한 고려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예문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っす체’와 ‘합다체’는 상대방의 주목을 유도하거나 해학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이은희(2009)가 말하는 특별화계의 정의에 부합하며 (14)의 예문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은희(2009)에서 일반화계와 특별화계로 분류한 것과 각각의 정의를 원용(援用)해서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화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표8〉 일본어의 청자대우 등급 제안

일반화계	높임의 정도	특별화계
-ございます	높임	っす
-です, -ます		
-だ	안높임	

〈표9〉 한국어의 청자대우 등급 제안¹²⁾

일반화계	높임의 정도	특별화계
하십니다	높임	함다
하세요		
합니다		
해요		
해	안높임	
한다		

‘っす체’와 ‘함다체’ 모두 기본적으로는 정중체의 축약형으로 높임의 화계로 등급을 설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15)에서 보듯이 ‘っす체’나 ‘함다체’를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로는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¹³⁾.

(15)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고 묻는 후배의 질문에)

- (a) * 一番好きな食べ物はすき焼きっす。
 (b) *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임다.

이상, 선행연구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っす체’와 ‘함다체’를 특별화계의 독립된 등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미완의 단계이므로 추가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일본어와의 비교 및 ‘っす체’와 ‘함다체’의 특별화계 설정의 시급에 주안점을 두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일 규범적인 경어체계 안에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일반대중들이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っす체’와 ‘함다체’를 고찰대상으로 하였다.

12) 이은희(2009)의 특별화계에 대입하여 ‘함다체’의 등급을 설정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크다. 본 연구의 특별화계는 점선으로 표시해 구별해 보았다. 특별화계의 재정비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13) ‘한다요체’나 ‘한다능체’와 같은 새로운 종결형식이 동등한 관계나 아랫사람에게도 사용 가능한 것과는 차별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형식은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청자대우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문법 연구가들에게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준구어체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 게시글을 수집·분석하여, 이들은 사용양상과 사용의도를 밝히고, 이 종결형식들을 청자대우법 체계 내에서 독립된 등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먼저, 수집한 블로그의 게시글 전체 문장에서 ‘っす체’와 ‘함다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3%, 10.6%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즉, 기본적으로는 규범적인 종결형식을 사용하면서 ‘っす체’와 ‘함다체’의 문장을 눈에 띄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っす체’와 ‘함다체’는 주목을 불러일으키고자 할 때 또는 자신의 실수나 부끄러운 상황을 고백할 때 상대방(독자)의 주목을 유도하거나 해학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어체계를 일반화계(청장년층의 현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계)와 특별화계(몇몇 계층 혹은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화계)로 나누어 화계의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는 이은희(2009)의 주장을 인용하여, ‘っす체’와 ‘함다체’를 특별화계의 독립된 등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을 경어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자대우 형식은 실제적인 사용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경어체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미흡하나마 일본어의 경어체계에 새롭게 특별화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한국어의 경우는 특별화계를 재정비하는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권연진(2000) 「컴퓨터 통신 언어의 유형별 실태 및 바람직한 방안」 『언어과학』 7(2) 한국언어학회동남지회 pp.5-27
- 권용문(2009) 「해요체의 발달 연구」 『국어 높임법 표현의 발달』 박문사 pp.67-124
- 金良宣(2018) 「회화체에서의 일본어 이디엄(idiom) 특성 -일본 만화를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55 한국일본어학회 pp.19-38
- 김태엽(2007) 「선어말어미'-습'-의 통시적 기능 변화」 『語文研究』 54 어문연구학회 pp.165-185
- 박지순(2016) 「한국어 모어화자의 상대높임법 인식 양상-20, 30대 화자를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73 한민족어문학회 pp.119-154
- 박효경(2016) 「메이저기『です』에 관한 일고찰-구어체 문말 표현에 쓰인 용례를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47 한국일본어학회 pp.3-21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p.71
- 시정근(2006) 「사이버언어의 조어법 연구」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pp.215-243
- 이관규(2005)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서울:집문당 pp.263-290
- 이은희(2009) 「상대 높임 화계에 대한 연구」 『국어 높임법 표현의 발달』 박문사 pp.203-234
- 이정복(1999) 「국어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에 대하여」 『어학연구』 35(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pp. 91-121
- (2002)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사회언어학」 『사회언어학』 10(2) 한국사회언어학회 pp.109-136
- (2011) 「인터넷 통신 언어와 사회언어학- ‘한다요체’ 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pp.5-40
- 이주행(1994) 「聽者待遇法の 話階 区分에 대한 考察」 『語文論集』 23 중앙어문학회 pp.69-78

- 홍종선(2009) 「현대 국어의 상대 높임 체계」 『국어 높임법 표현의 발달』 박문사 pp.9-30
- 芦田麻樹子(2005) 「한일 양국어의 대우법 대조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2(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193-212
- 井上史雄(2017) 『新・敬語論』 NHK出版新書 pp.66-207
- 倉持益子(2009) 「新敬語『ス』の使用場面の拡大と機能の変化」 『明海日本語』 14 明海大学 pp.23-35
- 黒木晶子(2016) 「文章・談話における文末形式『っす』の機能」 『文教國文学』 60 広島文教女子大学国文学会 pp.58-47
- 永富智子(2012) 「新敬語『っす』の新しい機能について：役割語的機能を持つ新敬語『っす』」 『北九州市立大学大学院紀要』 北九州市立大学大学院 pp.129-147
- 森本和彦(1999) 「한일 청자 존대 표현 "-습-"과 "-~ます"의 역사적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17 한국언어문화학회 pp.71-105

<용례출전>

『KAGEROU DAZE 아지랑이 데이즈 2』 (2014)사토 마히로, SLCOMIC.

『カゲロウデイズ 2』 (2013)佐藤まひろ, KADOKAWA.

<부록1>

No.	주소	등록일
①	https://blogs.yahoo.co.jp/kabochabubu/66644990.html	2017-10-10
②	https://blogs.yahoo.co.jp/ad_tsukuba/57937962.html	2017-06-22
③	https://blogs.yahoo.co.jp/kamikamiwayo/12395999.html	2015-04-11
④	https://blogs.yahoo.co.jp/midorinobousi125/34734127.html	2017-03-05
⑤	https://blogs.yahoo.co.jp/norainu0930/15835538.html	2012-05-06
⑥	https://blogs.yahoo.co.jp/kimitotomato/33132007.html	2017-05-25
⑦	https://blogs.yahoo.co.jp/sonae_circus/60489187.html	2011-01-30
⑧	https://blogs.yahoo.co.jp/ryoharum/9886811.html	2013-10-01
⑨	https://blogs.yahoo.co.jp/xjfdx372/12470154.html	2014-08-17
⑩	https://blogs.yahoo.co.jp/masanichy/27440450.html	2010-12-15
⑪	https://blogs.yahoo.co.jp/higuchan_man/15121765.html	2016-08-10
⑫	https://blogs.yahoo.co.jp/moka_chan2006/6068170.html	2012-07-08
⑬	https://blogs.yahoo.co.jp/masa1965tk/15642736.html	2017-11-06
⑭	https://blogs.yahoo.co.jp/mackey_400td/28057224.html	2016-06-12
⑮	https://blogs.yahoo.co.jp/jo78823/69617020.html	2017-10-13
⑯	https://blogs.yahoo.co.jp/pm4400_g3/19807793.html	2015-02-18
⑰	https://blogs.yahoo.co.jp/a6789012002/8197587.html	2011-02-27
⑱	https://blogs.yahoo.co.jp/papakoa/43416039.html	2017-09-21
⑲	https://blogs.yahoo.co.jp/waywardwind_1210/36884831.html	2016-02-28
⑳	https://blogs.yahoo.co.jp/fuko_mucun/36899200.html	2012-10-20
㉑	https://blogs.yahoo.co.jp/aquagcb/40053050.html	2013-05-27
㉒	https://blogs.yahoo.co.jp/yancha_don/71788542.html	2017-03-27
㉓	https://blogs.yahoo.co.jp/athlete205/29278675.html	2012-05-05
㉔	https://blogs.yahoo.co.jp/miomioemoe/62746737.html	2014-03-26
㉕	https://blogs.yahoo.co.jp/mprdf577/33819316.html	2014-07-31
㉖	https://blogs.yahoo.co.jp/dnbxh274/10793375.html	2013-11-19
㉗	https://blogs.yahoo.co.jp/zeru_final_fantasy_8/24941647.html	2013-10-18
㉘	https://blogs.yahoo.co.jp/yasubeh/66253763.html	2017-07-17
㉙	https://blogs.yahoo.co.jp/youtinyon/14534452.html	2013-08-05
㉚	https://blogs.yahoo.co.jp/kazunori3825/28598069.html	2011-12-11
㉛	https://blogs.yahoo.co.jp/instinct_7o/21287412.html	2011-10-06

㉔	https://blogs.yahoo.co.jp/dsctw1100/26486760.html	2015-03-16
㉕	https://blogs.yahoo.co.jp/zyunterad/35497714.html	2015-01-10
㉖	https://blogs.yahoo.co.jp/mal_mal_dives/47265079.html	2013-12-11
㉗	https://blogs.yahoo.co.jp/makosan0504/38783380.html	2014-01-17
㉘	https://blogs.yahoo.co.jp/m0513road/46032001.html	2013-12-28
㉙	https://blogs.yahoo.co.jp/hina32rui1031/27112572.html	2010-09-03
㉚	https://blogs.yahoo.co.jp/yusiopapa/45728350.html	2014-07-19
㉛	https://blogs.yahoo.co.jp/t djcq247/22612001.html	2012-02-17
㉜	https://blogs.yahoo.co.jp/estem0611/36458271.html	2016-08-24

<부록2>

No.	주소	등록일
1	https://blog.naver.com/kwjeong1606/30090990982	2010-07-31
2	https://blog.naver.com/gyuoyome/80195214515	2013-08-01
3	https://blog.naver.com/manduwasun/220169789063	2014-11-03
4	https://blog.naver.com/flyingkim1/220807875746	2016-09-08
5	https://blog.naver.com/hyunheew83/220576436158	2015-12-23
6	https://blog.naver.com/petsandme?Redirect=Log&logNo=220964581233	2017-03-22
7	https://blog.naver.com/sujeongcuk/221030399826	2017-06-16
8	http://blog.daum.net/cho121521/613	2011-12-16
9	https://blog.naver.com/igunpo/220240258490	2015-01-14
10	https://blog.naver.com/dmstns2004/110166035451	2013-04-11
11	https://blog.naver.com/yoochoo2703/60142751803	2011-10-04
12	https://blog.naver.com/applee8171/220587640366	2016-01-04
13	https://blog.naver.com/lsg102030/220944437326	2017-02-25
14	https://blog.naver.com/tabomom/30150149930	2012-10-27
15	https://blog.naver.com/domezone/221113546108	2017-10-10
16	https://blog.naver.com/ktib1234/220489009534	2015-09-22
17	https://blog.naver.com/bhr920723/140183259527	2013-03-09
18	http://blog.daum.net/kff011kr/16847802	2011-02-15
19	https://blog.naver.com/psysys83/220383416722	2015-06-08
20	https://blog.naver.com/jichangmin83/221034440359	2017-06-21
21	https://blog.naver.com/jjeeff123/221017318729	2017-05-30
37	https://blog.naver.com/ybprince/220748208304	2016-06-28
23	https://blog.naver.com/su763000/220811769306	2016-09-13
24	https://blog.naver.com/sssino223/204758702	2014-02-19
25	https://blog.naver.com/rose_bunny/220528249463	2015-11-03
26	https://blog.naver.com/manduwasun/221128234486	2017-10-30
27	https://blog.naver.com/llkjhr/221076687902	2017-08-18
28	https://blog.naver.com/jin98744/220611911937	2016-01-30
29	https://blog.naver.com/dbowie00/220916631462	2017-01-21
30	https://blog.naver.com/bibi1003/221170459118	2017-12-25
31	https://blog.naver.com/wiseguykim/221049156207	2017-07-11
32	https://blog.naver.com/ajrr121/220604375325	2016-01-21
33	https://blog.naver.com/pisakim/220606383519	2016-01-23
34	https://blog.naver.com/manduwasun/220582500981	2015-12-30
35	https://blog.naver.com/dbba/220635725484	2016-02-23
36	https://blog.naver.com/rkdckdtn45/220562224316	2015-12-08
22	https://blog.naver.com/workddl321/221034672853	2017-06-21
38	https://blog.naver.com/haru9730/220382989205	2015-06-07
39	http://blog.daum.net/hahee119/461	2015-09-23
40	https://blog.naver.com/elle9161/220377439110	2015-06-02

— 〈 要 旨 〉 —

日韓新敬語の対者敬語の等級設定に関する研究

— ブログにおける「っす体」と「hamda体」の使用実態・意図を中心に —

本研究では日韓の規範的な敬語体系の中には存在しないが、一般に広く使われている形式である「っす体」と「hamda体」を対象とし、それぞれの使用実態・意図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また、「っす体」と「hamda体」を対者敬語の体系に独立した等級として設定する必要があると主張した。すべての用例は準話し言葉といえる日韓のインターネットのブログから採集し・分析した。その結果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になる。

まず、各ブログの記事における「っす体」と「hamda体」の比率を見てみるとそれぞれ7.0%、10.7%と高くないことが分かった。これより、一般の人々がこれらの形式を何らかの意図をもって戦略的に使っ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場合によっては「っす体」と「hamda体」は他人の注目を得たい時、または自分の失敗や恥ずかしい状況を告白する時、相手(読者)の注目を集めたり滑稽な効果を強調するための戦略として使用し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

最後に、このような分析に基づいて「っす体」と「hamda体」を特別話階(いくつかの階層または特別な状況で使用される話階)の独立した等級として設定する必要があると主張した。これらの形式を敬語体系に含めることは時期尚早と言われる可能性もあるが、これらの現象を注意深く観察し、研究成果を蓄積していくことが、敬語体系の研究の発展につながると思われる。

以上の結果、まだ不十分ではあるが日本語の敬語体系に新しく特別話階を設け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また、韓国語の敬語研究では特別話階を再検討することについて本格的な議論が深まることを期待したい。

論文分野：社会言語学

キーワード：「っす体」、「hamda体」、新敬語、戦略的敬語、特別話階

■ 김지희(金志姬)

(前)가톨릭대학교 강사

jiheekim2002@gmail.com

- 投稿日： 2018년 6월 30일
- 審査開始： 2018년 7월 10일
- 審査完了： 2018년 8월 6일
- 掲載確定： 2018년 8월 10일